



이환주 남원시장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을 벌이고 있다.

# 이환주 남원시장, 소통행정 펼친다

## 2월 7일까지 23개 읍·면·동 방문 의견·건의사항 수렴

이환주 남원시장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주생면을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23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장의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정설명회를 갖고 있다.

미래로 도약하는 새 희망 남원, 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정설명회는 예년의 사전공연을 생략하고, 이 시장과 시민들의 대화시간을 대폭 늘려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해당 읍면동장이 관내 주요 사업과 추진계획을 영상을 곁들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동절기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었던 주민들도 시정설명회에서 이웃들과 만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시정 설명회가 행정과 시민들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승화하고 있다.

올해 질문의 특징은 개인적인 민원보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장방향에

대한 질문과 건의가 많은 점이다. 18일 열린 인월면 시정설명회에서 이동식 씨는 "인월면 진출입로가 비(非) 신호체계인 Y자 형태로 3개의 교차점이 있어 진출입 분리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담당자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회전교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즉답했다.

17일 산내면 정경식씨는 "지리산둘레길에 개통된지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투자없이 탐방객만 오라고 있다"며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리산둘레길에 오는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다"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이나 자연경관을 조성해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행정기관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의사항도 눈에 띄었다. 10일 사매면 한남수씨는 "매년 혼불마을을 찾는 방문객수가 7만명을 넘



순창군이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기반사업에 11억5,7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지역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 농업인 복지기반사업에 11억5700만원 투입

## 순창군, 공동급식·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지원

순창군이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기반사업에 11억5,7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지역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 자녀 교육환경 조성 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억1,800만원을 투입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영농시기에 출산으로 인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5만원으로 증가하고, 최대 지원 일수도 70일로 연장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에서 보험료의 79%를 부담하며 농업인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자부담 2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쌀가공협회 이웃돕기 '훈훈'

## 쌀 20kg 128포 시가 450만원 상당 균형 전달

순창군 쌀가공협회(회장 최광식)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길라미 순창 쌀 20kg 128포 시가 450만원 상당을 균형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회원 10여명이 직거래는 5포에서 많게는 20포까지 모은 것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 등에 설날을 맞이해서 전달 된다.

쌀가공협회 최광식 회장은 "옛날에는 정미소가 큰 마을에는 다 있을 정도로 많았지만 지금은 쌀 소비가 줄어들어 군 전체에 정미소가 20여개소 정도"며 "정미소가 전체적으로 어려움 처지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주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의 불우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눈 최광식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탁된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육아에서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식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조제분유와 조제 이유식을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자동 연장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일 기준이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신청당시 지원조건 충족 및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하다.(2015년 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이며,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영·유아 부모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와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8729)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경찰, 설명절 위문품 전달

고창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설명절 전 행복원, 조손가정 등 두 가정, 전직 경찰 선배들을 찾아 격려하고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설명절을 앞두고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시설 고창 행복원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들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고, 조손가정 등 생계가 어려운 2가정을 선정하여 우수리공제를 통해 마련된 기금 전달과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준비했다.

우수리공제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경찰서 전 직원이 매월 3,000원씩을 기부하여 꾸준한 격려와 선행을 이어가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고창경찰서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어르신 문안순찰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쫄쫄파출소(소장 서정선)에서는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순찰활동과 병행하여 어르신 문안순찰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안순찰은 경찰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안부를 묻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해 개선하는 밀착형 순찰제도이다.

쫄쫄파출소는 최근 동절기 마을주민들이 항상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것을 착안하여 매일 근무때마다 2개 마을 이상씩 문안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민집갈도, 교통사고등을 예방하는 홍보 효과까지 있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신일섭 서장은 "지역 경찰관들의 문안순찰로 어르신들 말벗봉사와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주민공감 치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임실군은 설 연휴 기간 폐쇄한 지역 이 미지 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내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외 7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까지 시설물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한다.

화장실 내·외 청결상태, 세면대, 변기, 거울 등 시설물 상태 이상 유무와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수건 등) 비치 등 분야별 중점 점검을 통해 수준 높은 위생관리와 청결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은 지역의 얼굴이다"며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명절 이후에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종영 기자

# 남원시, AI·구제역 차단 고강도 방역활동

남원시는 설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에 따른 AI, 구제역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고강도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4대 중점 방역 추진계획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강화, 「방역관련 홍보대책 강화, 「소독강화를 통한 유입차단, 「축산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한다.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13개 협업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휴 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운영하며, 방역대책 홍보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역, 읍면동 주요길목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과 SMS등을 매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소독장소 5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필요시 일반 귀성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고, 설 명절 전후 (1.25일, 2.1일) 관내 모든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에서도 지속되는 초소규모에 지친 근무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 2회 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초소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매일 축사를 소독하고, 우편·택배차량이 농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며, 설 연휴기간 AI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방문도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큰 호응

임실군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농사'의 시작으로 알려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성수면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균형 농민교육장 및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총 18회에 걸쳐 벼, 고추, 쌀가공식품을 비롯해 농촌여성농 등 7개 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한 외부강사와 작목별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과와 성공사례 분석으